

#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속도

### 임실군, 내년 3월 착공... 심민 군수, 현장 찾아 추진상황 점검

임실군이 내년 초 착공을 앞둔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수 제2농공단지는 오수면 금암리 산 23번지 일원의 16만5,980평방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며, 내년 3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심민 군수는 29일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사로부터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오수 제2농공단지는 지난 해 12월 감정평가 이후 담당 부서에서 편입토지 대상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로 80% 이

상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적극적인 보상 협의로 문화재 시굴 조사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군은 오수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12월 말 농공단지지정 신청으로 내년 1월 전라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를 받아 3월 착공 및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착공에 앞선 2월 분양 계획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투자 협약을 한 후 공사를 추진하고, 이듬해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농공단지는 오수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과 맞물려 반려동물 관련 지역특화단지 및 일반농공단지로 조성될 예

정이다.

군은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반려동물 산업의 집적화는 물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기업들의 입주로 오수 반려동물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민 군수는 "내년 3월 착공을 앞둔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에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오수 반려동물 산업을 앞당기고,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스포츠마케팅에 노력한 결과, 스포츠 위상을 한층 높이고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축으로써 그 역할을 다했다.(아구대회 모습)

## 순창군, 스포츠 메카 자리매김

### 코로나19 방역 강화해 대회 진행·마케팅 강력 추진·각종 상 휩쓸어

순창군이 올 한 해 스포츠마케팅에 노력한 결과, 스포츠 위상을 한층 높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의 힘겨운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축으로써 그 역할을 다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스포츠대회가 무기한 연기되어 숙박업, 음식점, 편의점 등 지역상권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해 지난 6월부터 자체 방역팀을 운영, 각종 스포츠대회의 전지훈련을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 조심스럽게 재개하여 스포츠대회 방역표준을 주도했다.

군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준수해 참가선수와 대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경기장 출입구에서 비접촉식 체온계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발열 체크 후 대인 소독기를 통과해야 경기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방역시스템을 구축했

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새벽 5시부터 대형 방역차량이 경기장과 주변 도로를 철저히 소독해 대회 관계자와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같은 상황 아래 4개 종목에 걸쳐 24개 대회가 개최되고, 3개 종목 45개 팀이 전지훈련을 위해 방문했다. 이에 따라 올해 6만명 이상이 순창을 방문해 직·간접적으로 지역내 소비가 확대되면서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전국의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도 자립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마케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한편, 올해 순창군은 '2020 소비자가 선정한 스포츠레저 대상'과 '스포츠마케팅어워드 2020' 지자체부문 본상 수상으로 스포츠메카로 자리를 굳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 남원시, 각종 평가 인센티브 12.2억원 확보 '역대 최고'

### 대통령상·최우수 평가 12건·우수·장관상 26건 수상

남원시가 50여 건의 중앙부처 및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대통령령상을 비롯, 최우수 평가 12건, 우수 및 장관상 26건을 수상하며 12.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19년 대비 1억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고 성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처럼 남원시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하여, 민선7기 공약이행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평가, 전국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 12건의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이환주 남원시장

26건의 우수 및 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시의 행정 수행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전했다.

남원시가 우수한 평가를 확보한 결과는 시가 시민 결의로 한 발 더 다가서는 친절 행정으로 복지와 생활안전, 양질의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는 평이다.

수상한 주요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기초생활 보장분야 우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우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우수 ▲재난관리 및 ▲산불진화 역량평가 우수 평가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평가 최우수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최우수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A등급 ▲스마트 영농 기술지원

분야 우수상 등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를 비롯, 신종 감염병분야 우수, ▲장내기생충 퇴치사업 우수,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밖에도 ▲지적재조사 최우수 ▲지적업무 종합평가 우수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건축행정 평가 우수 ▲지방재정 우수 등 각 사업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과 생활안전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정책동아리 1기 최우수 연구과제로 야간관광분야 선정

순창군이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동아리 1기의 최우수 연구과제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채택하고 7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올해 처음으로 출범된 정책동아리는 전체 10개 동아리 58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창의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 문화예술, 관광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동아리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난 7개월간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을

걸쳐 총 10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10개의 연구과제에 대해 순창군 실·과·원·소장의 평가 결과 최우수 연구과제에 '야(夜)한 순창' 동아리의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야(夜)한 순창' 동아리는 순창군이 타 시도에 비해 야간 볼거리나 먹거리 등 관광 콘텐츠가 부족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체류형 관광객이 당일 여행 관광객에 비해 지출액이 2.4배 정도 높다는 점을 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간 관광 콘텐츠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야간경관 5개년 추진계획 도입을 주장하며, 야간경관 추진위원회 구성과 야간경관 조성 인센티브 지급 사업, 군 야간명소 입양사업 등을 제시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 임실군, 농업생산기반 시책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임실군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주민들의 영농편의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사업을 잘 추진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생산기반 시책분야 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으며,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항구대적으로 오수 신기지구에 이어 신흥 호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실시했다.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및 수리 시설 보수에 힘써왔으며, 농업기반시설인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 33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민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 사전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장인 심민 군수의 현장 지휘력이 큰 평가를 받았다.

실제 심 군수는 사업 추진을 할 때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는 등 현장중심형 행정을 펼쳐왔다.

군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예방과 시설관리 및 정비사업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농업생산기반 시책 기관 표창은 주민들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사업의 추진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영농인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에 전력을 다한 결과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지원범위 확대

남원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구가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 실시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월 52만7,158원, 4인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이었지만, 내년 부터는 1인가구는 월 54만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남원시 주민복지과 조환익 과장은 "우선적으로 2021년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의 큰 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자 종식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남원시는 내년 1월 4일부터 '민원업무 담당자 종식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운봉읍, 추진면,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이백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16개 읍·면으로,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낮 12시까지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1시까지 휴무시간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점심시간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해 사무실 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하도록 하며,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LED게시판과 배너기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